

SK이노베이션, 벤츠에 2차전지 공급

Daimler와 EV용 공급계약 체결 ... 고성능 전기수퍼카로 채용범위 확대

SK이노베이션이 현대자동차와 Mitsubishi Fuso에 이어 Daimler와 전기자동차(EV)용 2차전지 공급계약을 성사시켰다.

SK이노베이션은 Daimler그룹의 메르세데스-AMG의 전기자동차 모델인 SLS AMG E-셀에 쓰이는 2차전지를 공급하게 됐다고 2월9일 발표했다.

SLS AMG E-셀은 Daimler그룹이 2011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전기 슈퍼카로, 구체적인 2차전지 공급규모와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2009년 일본 Mitsubishi Fuso의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와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에 각각 2차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3번째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순수 전기자동차에 이어 고성능 전기슈퍼카까지 2차전지의 공급 범위를 넓혀 안정적으로 2차전지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르세데스-AMG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자회사로 F1 경주용 자동차 등 고성능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09>